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으로 성과 복지부장관상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양종철·사진)이 공공보건으로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북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산 심마니집, 남원 주천면에 돼지저금통 전달

남원시 주천면은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지리산 심마니집' 김용락 씨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550만원 상당의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했다. 김용락·송희진 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가족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기부함으로써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선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김씨는 "1년 동안 '지리산심마니집' 구두자의 기부와 자녀들이 함께 알뜰살뜰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렇게나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이 돼지저금통을 기부합니다."

남원의용소방대, 릴레이 나눔으로 지역사회 '훈훈'

남원의용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연말을 맞아 각종 5·면 의용소방대가 관내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릴레이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의용소방대는 지난 12월 9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6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하고, 산동 의용소방대는 지역 아동과 사랑의열매에 현금 30만 원과 생필품(휴지 21롤)을 전달, 보철 의용소방대 또한 화장지 30롤을 기부해 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보냈다.

정읍경찰서, 연말연시 맞아 범죄예방 총력 대응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2주간 현금다액압수 방법전단, 범죄취약지역 순찰강화 등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별방범활동 기간에는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소에 방문해 CCTV 및 비상벨 작동 상태 등 범죄취약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관리자와 시설주 상대로 대응 요령 등을 대면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소 사기 정부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티커가 부착된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주민접촉을 확대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창 농악 상쇠 이명훈', 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35년 동안 현장서 전승 활동에 헌신... 고창 농악 전승·학술기반 구축 '큰 역할'

고창농악 상쇠 이명훈 현 고창농악보존회 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정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고창 농악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명훈 고문은 1990년대 초부터 고창 농악을 배우고 익히며 전승 활동에 헌신해 왔다. 고창 농악 전문교육기관인 고창농악전수관을 운영하며 후학 양성과 체계적인 전수 교육에 힘써왔고, 현재는 (사)고창농악보존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 농악 40년 역사 가운데 무려 35년간 현장을 지켜온 그는 최근 고창 농악 4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장직을 맡아 고창 농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명훈 고문은 1998년부터 10년에 걸쳐 고창 농악의 기록과 정리에 집중하며 '고창 농악', '고창의 마을굿' 등 총 3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고창 농악의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고창 농악은 현재 연간 수천 명이 전수 교육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농악 전승 모델로 자리 잡았다. 공연은 온라인 예매가 개시된 지 몇 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대학 풍물 동아리 학생들에게 고창 농악 전수는 필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주중앙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에 500만원 기부

전주중앙신협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중앙신협은 최근 완산구 팔달로에 위치한 전주중앙신협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강연수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과 한경희 전주중앙신협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지역 상생과 사회공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부로 전주중앙신협의 누적 기부금은 4,183만원에 달하게 됐다.

전주중앙신협은 그동안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신협 어바바 멘토링'을 비롯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온세상 나눔캠페인', 전주한지 벽지와 장판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한집 프로젝트' 등에 동참하며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중앙시장에 소품카트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기관에 백미를 기탁하는 등 생활 밀착형 나눔 활동도 지속해왔다. 중앙동 300 행사에서는

대한국속·태웅,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인재 양성 장학금 쾌척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6일 정읍시청에서 지역 내 기업인 (주)대한국속과 (주)태웅으로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뜻깊은 참여로 진행됐다.

먼저 정읍시의 시내버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대한국속(대표이사 이호진)은 이날 장학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주)대한국속은 이번 기탁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38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장학금 기탁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별도로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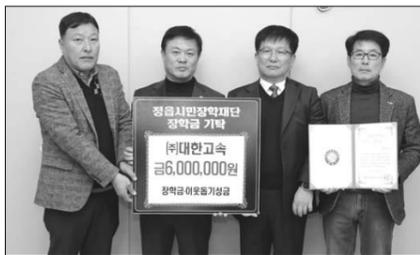
기탁식에 참석한 응운우 정읍영업소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수성동에 위치한 전문 건설업체인 (주)태웅의 노관수 대표도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동참했다. 태공사,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태웅은 2000년 설립 이래 지역 건설업의 발전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관수 대표는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운영해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한경희 이사장은 "신협의 사회공헌사업은 지역 신협과 재단의 전국 단위 사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전주중앙신협은 지역의 나눔 문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우정청-원주우체국, '안주사랑카드' 출시

전북지방우정청과 원주우체국이 원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형 지역화폐인 '안주사랑카드'를 선보였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원주군 체크카드형 지역화폐 '안주사랑카드'를 지난 12월 17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이용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주사랑카드'는 원주군 내 우체국 창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우체국뱅킹·chak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원주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금액이 소진되면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오상근 기자



정읍 지역 기업·단체, 이웃사랑 실천 '한마음'

연말을 맞아 정읍시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유)이십일세기건설(대표 이복순)은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기부 행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덕두영농조합법인(대표 김학구)도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이날 정읍시친환경연합(대표 김화경), 정읍로컬협동조합(이사장 김창민), 정읍로컬협동조합년회(대표 이동현) 등 3개 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천동농협, 일상 속기부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29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으로 보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조합장실에서 임직원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열고, 임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화재피해를 받은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구천동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것으로, 화재피해를 받은 이웃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구천동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상호회장과 수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달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거성 농자재 대표, 장학금 2백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한 거성 농자재가 29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임춘자 대표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크고 작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사랑을 무주군의 미래 인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해서 무주를 빛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성 농자재는 농·임업을 기계 및 농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원씩을 기부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안성아씨들' 바느질동아리, 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주군 안성면 바느질 동아리 '안성아씨들'이 지난 26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안성아씨들 류영희 대표는 "회원들 10명이 직접 만든 수예품을 풀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온정이 담긴 만큼 이웃들에게 든든한 용기가 되고 바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광활면 여성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쾌척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신진숙)가 2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광활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5년 11월 29일 등록(간) (9)68-912 전주사 온스구 7 건물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